[Economist] 박상현 2122-9196 shpark@hi-ib.com / 류진이 2122-9210 jinlee@hi-ib.com

뱅크데믹 공포, 소강국면 진입

그림1. 급등하던 도이체방크 CDS 가 소폭 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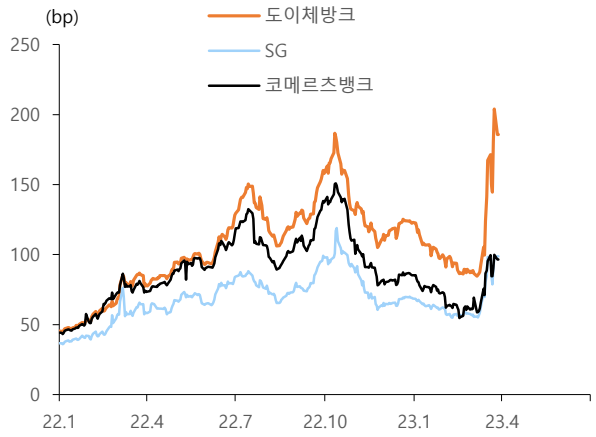


그림2. 미국 지역은행 ETF 가격도 급락 추세가 일단 주춤해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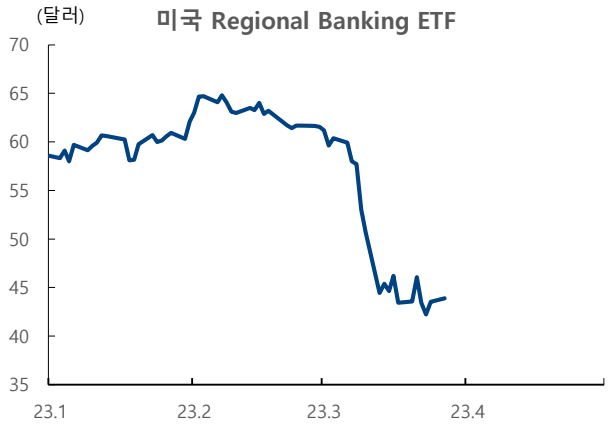


그림3. 미국 CDS 상승세도 주춤해진 가운데 달러화는 약세 흐름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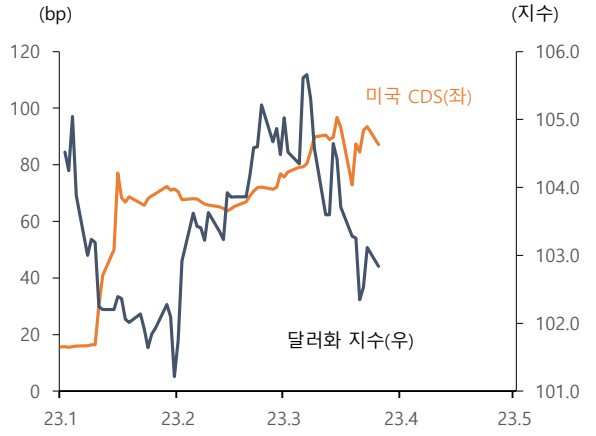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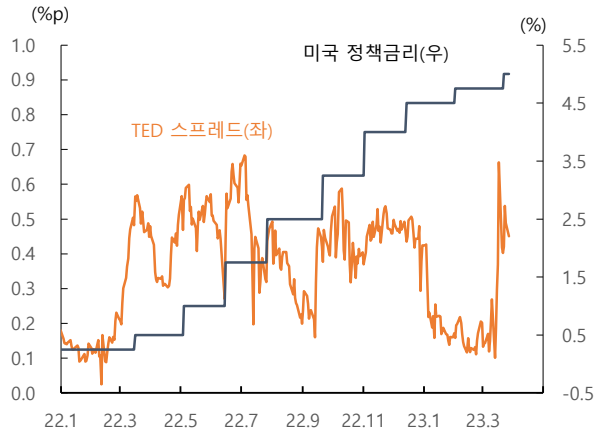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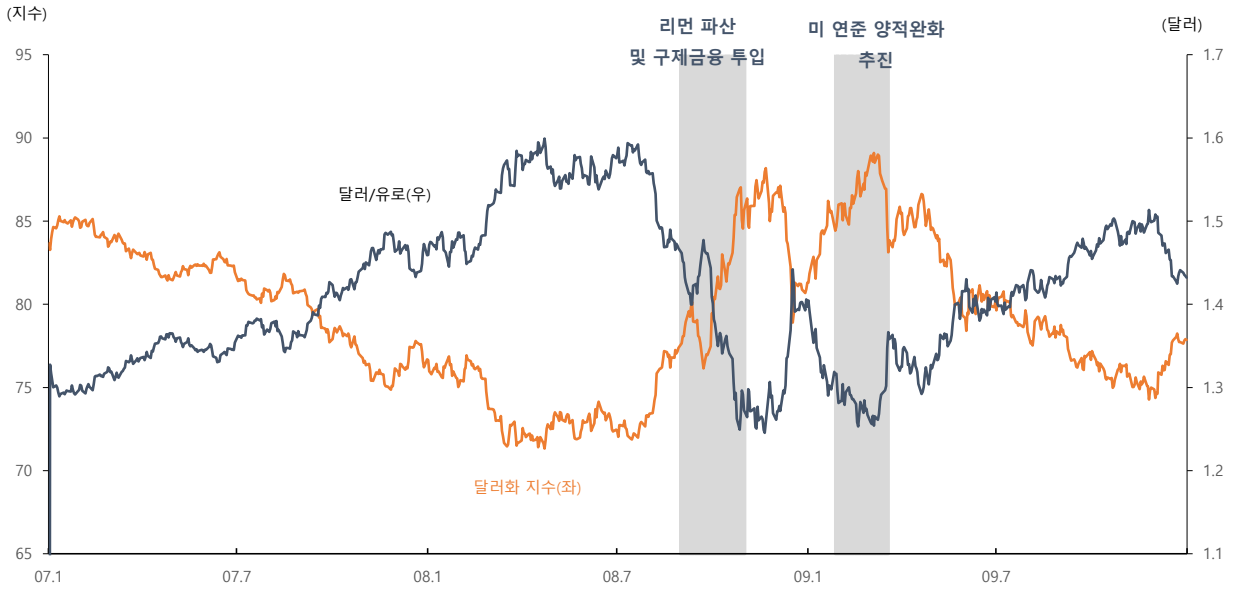


그림4. 슴고르기에 들어간 TED 스프레드 상승세



자료: Bloomberg, CEIC,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5. 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달러화 및 유로화 추이



자료: Bloomberg, CEIC,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

■ 소강국면에 접어든 은행 전염리스크

- **주요 유럽 은행 CDS 소폭 하락**

  · 지난주 급등했던 유럽 주요국 은행 CDS 가 반락함. 퍼스트 리퍼블릭은행 매각과 더불어 미 연준과 ECB 인사들의 신용위기와 관련된 유화적 발언도 한 몫을 함.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(ECB) 총재의 "ECB 는 필요할 경우 유동성을 투입할 수 있다"는 발언과 함께 미 연준 인사들도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을 강조한 발언을 잇따라 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을 달래고 있음

  · 더욱이 미 정부와 연준이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(BTFP)으로 알려진 은행 대출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역시 뱅크데믹(Bankdemic·은행과 팬데믹의 합성어) 공포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함

- **국채 금리 및 유가도 반등**

  · 신용위기 확산 우려로 그 동안 급락하던 국채 금리도 큰 폭으로 반등함. SVB 사태 이후 130bp 이상 급락했던 미국 2 년 국채 금리는 27 일 약 23bp 급반등하면서 4% 수준에 재차 육박함. 유가 역시 큰 폭으로 반등함. 한때 배럴당 66 달러 수준대까지 하락했던 유가는 27 일 5%이상 반등하면서 72.8 달러까지 상승함

- **카운트파트 리스크를 대변하는 TED 스프레드 역시 반락**

  · 당사가 은행발 신용위험 전염리스크와 관련하여 강조했던 TED 스프레드(TED 스프레드는 '미국 3 개월 국채 금리와 리보금리(유로달러)의 차이) 역시 점진적이지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도 긍정적임. SVB, CS 에 이은 미국과 유럽 은행들에 대한 신용위험이 아직은 전방위로 확산되기 보다는 다소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시그널임

■ 신용위험 확산 리스크와 관련하여 달러 및 유로 흐름 주목

- **잠재적 위험이 소멸된 상황은 아님**

-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와 유럽 은행들의 신용위험, 뱅크데믹이 다소 소강국면에 접어드는 분위기지만 잠재적 위험이 해소된 것은 아님
- 상업용 모기지 대출 및 사모펀드(PEF) 부실 리스크, 냉각된 자금시장 및 뱅크런 우려 지속 등은 여전히 신용위험을 언제든지 확산시킬 수 있는 잠재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

- **경제 펀더멘탈 리스크와 관련하여 중앙은행 금리정책이 더욱 중요해짐**
  - 향후 은행발 신용위기 확산에 있어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 펀더멘탈임. 잠재 위험으로 지적되는 상업용 모기지 대출 부실 리스크 등도 경기 흐름에 크게 좌우될 것이기 때문임. 즉, 경기 급랭으로 상업용 오피스 공실률 및 연체율이 급등할 경우 은행 부실 리스크가 결국 현실화될 것임
  - 따라서 금융안정, 특히 경기 경착륙발 금융불안을 막기 위한 미 연준 등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사이클 피봇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임

- **달러화 추이 주목**
  - 신용위기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달러 약세 및 유로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배경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 피봇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. 즉, 글로벌 자금이 아직은 신용위기 확산에 따른 극도의 안전자산 선호보다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에 따른 신용위기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임
  -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되돌아보면 리먼 파산 등 신용위험이 고조되는 국면에서는 달러화 강세 현상이 나타났지만 미 연준의 유동성 확대 정책이 추진되면서 달러화가 약세 전환되었음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음

Compliance notice
▶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-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▶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 : 박상현, 류진이)
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